

## ‘1천명당 의사수 1.6명’ 전남·경북 “국립의대 설립 최우선 과제”

김영록 전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 공동건의문 발표

450만 전남·경북 도민 건강권 확보 함께 노력 다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표적 의료취약지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 것이다.

양 지역은 손을 맞잡고 의료복지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 건의문 발표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등이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국립대가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에서 양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될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과 경북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이런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섬(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지역 아이들과 산모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

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기초의료체계가 붕괴 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실제로 양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를 등도 모두 평균 미만이다.

올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의료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남·경북을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론 지역의 근본적 의료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취약지인 양 도에 반드시 국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두 번째)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양 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행사에는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안동대 등 3개 대학 총장과 대표 인사들이 함께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립 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 것”이라고 밝혔다. 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신세계 신축·이전 계획, 쪼그라드나

행정절차 늦어져 이마트 부지에만 백화점 건립안 ‘만지작’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신축·이전 사업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축소 등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주지역 유통가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8월 백화점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허가 행정절차의 첫 관문인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광주시에 접수했고,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의결, 3월 조건부 동의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30일에 이어 8월9일 추가 보완 요청에 따라 최종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신축·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국내 시장상황과 투자여건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행정 절차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내부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소유 도로 편입에 따른 특혜 주장과 소상공인과 상생방안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다는 10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는 이마트 부지에만 백화점을 짓는 방안이다.

광주신세계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경우 백화점 신축·이전 구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판매시설인 이마트 부지에만 백화점을 건립할 경우 시 소유 도로를 편입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공공기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지구단위계획 심의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 경관·건축 심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기업으로서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축될 백화점의 영업 면적은 현재의 4배 규모인 16만330㎡(약 4만8000평)에 이른다.

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어 국내 백화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신축·이전 계획이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가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용일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 11월부터 전기차 생산라인 구축한다

11월 1일부터 40일간 가동 일시 중단 내년 하반기 전기차 양산·내수·수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전기차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GGM은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시험생산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40일간 가동을 중단한 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보완 공정에 들어간다.

GGM은 내년 상반기 전기차 시험생산 뒤 제품시연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이후 양산을 시작, 내수와 수출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양산과 함께 2교대 인력을 운영할 방침으로, 이에 대비한 순차적인 인력 채용에



도 나설 예정이다.

GGM은 2022년 총 5만 대를 생산, 당기순이익 129억 원을 기록했다.

이슬비 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 제23회 영광불갑산 신세계축제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

상사화 소원의 길

상사화 꽃길 걷기

평전국악버스킹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상사화 달빛야(夜)행

**주요 프로그램**

- 상사화 소원의 길
- 상사화 꽃길 걷기
-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 상사화 달빛야(夜)행
- 평전국악버스킹 (15일, 16일, 22일, 23일) - 시간: 오후 7시
- 상사화 대학가요제

**초대가수**

김연자

황민우, 황민호

**9월 15일 오후 6:30**

■ 축제 입장료 (8:00~18:00 입장객에 한함)

구분	요금	환급액 (영광사랑상품권)
일반	3,000	3,000
5세 미만(주민등록등본 제외), 영광군민(신분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 증 제시) 임산부(임신확인서 제시), 축제 관계자·초청인사	무료	-

\* 환급된 영광사랑상품권은 축제장과 영광 전 지역에서 화폐처럼 사용 가능 (연매출이 30억원 이상인 일부 가맹점 제외)

**2023. 9. 15.(금) ~ 9. 24.(일)**

**영광 불갑산 관광지 일원**

주최/주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